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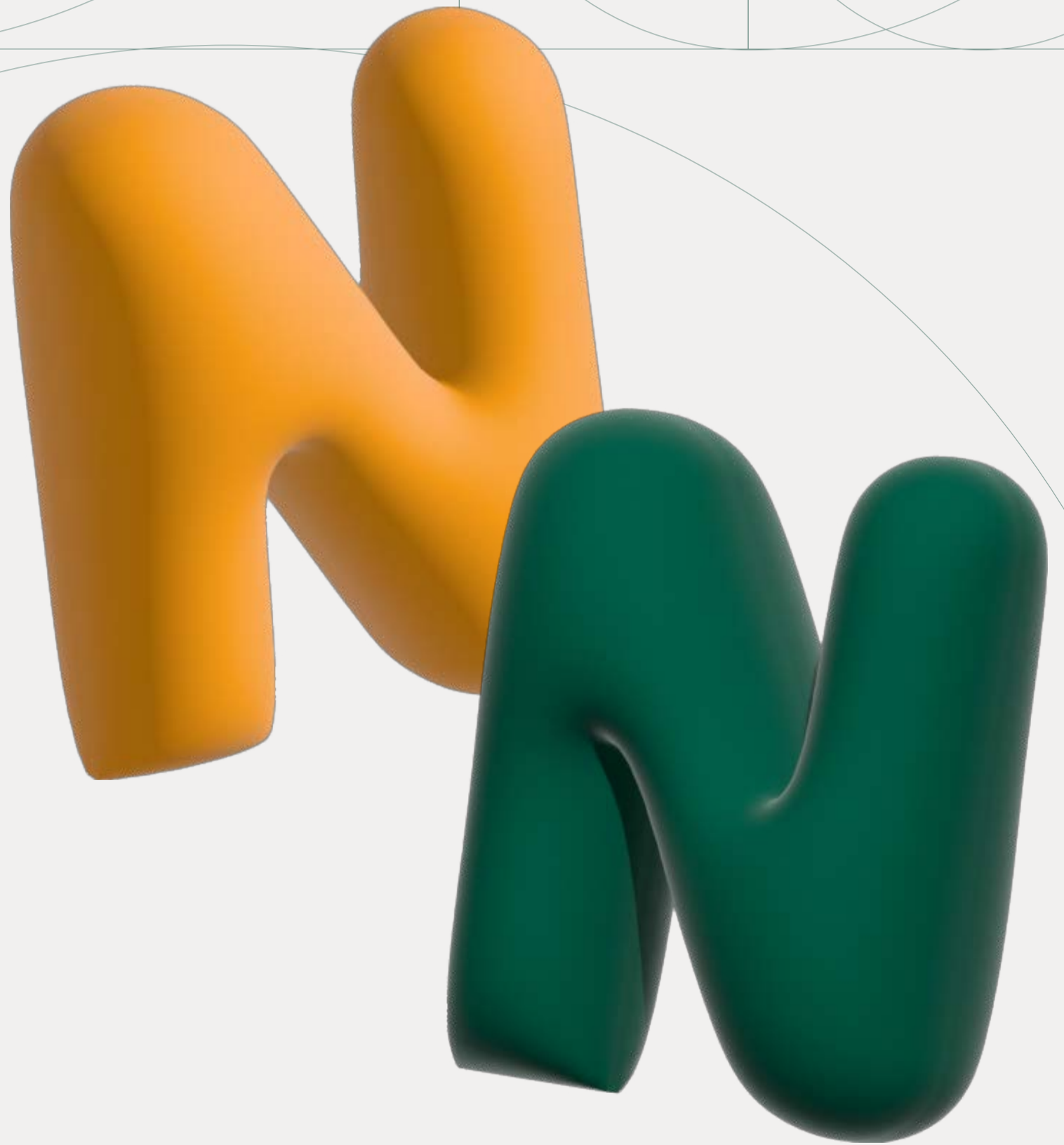
Reimagining Community

**FORUM
2022**
CONNECTING FOR IMPACT

N개의 생각, **N**개의 공동체

2022. 09. 01. (목)
14 : 00 - 18 : 00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주최 | **ISQUARE**

후원 |  아산나눔재단

Program

OPEN

13:00 ~

참가자 등록 · 부스라운딩

14:00 ~ 14:20

오프닝 (사회 : 박재희_AFA 5기)

FORUM Part. 1

공동체의 대전환과 소셜섹터의 역할

14:20 ~ 14:50

초연결사회_소셜섹터의 역할
(이재열_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4:50 ~ 15:20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의 공동체
(김대식_KAIST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15:20 ~ 15:50

토론 (좌장 : 이미옥_AFA 8기)

15:50 ~ 16:10

NETWORKING

FORUM Part. 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체 실험

16:10 ~ 16:30

사회혁신을 고민하는 새로운 모델, 가벼운 공동체
(공석기_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16:30 ~ 16:50

취향기반 대화 커뮤니티, 남의집
(김성용_남의집 대표)

16:50 ~ 17:10

좌우가 같이 노는 온라인 공론장
(유호현_옥소폴리틱스 대표)

17:10 ~ 17:30

고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공생으로
(김옥란_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센터장)

17:30 ~ 17:50

토론 (좌장 : 공석기_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아산나눔재단 소개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2011년 10월 출범한 공익 재단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起業者精神, Entrepreneurship)' 확산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해 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 사회혁신가 양성 사업,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차세대 사회 혁신 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7개월 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소셜섹터 내 현직 종사자와 일반 기업 CSR 중간 관리자가 경영 능력과 리더십, 기업가정신을 고루 함양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들은 경영 전략, 리더십, ESG와 임팩트, 브랜딩, 재무회계, 캡스톤, 사회혁신 프로젝트로 구성된 통합 교육을 통해 기관 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더 큰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네트워크

아산 프론티어 네트워크는 '아산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수강한 이들의 자발적 소셜섹터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이들은 'N_SQUARE'라는 이름으로 소셜섹터에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회 변화 현안을 고민하는 콘퍼런스 'N_FORUM',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N_TALK' 등을 개최합니다.

2021년에는 사회혁신가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혁신가의 여정과 역량 모델링'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 공유회를 열었으며 2022년 한 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네트워크와 N_FORUM



N포럼(N_FORUM)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동문회인 'N_SQUARE'에서 기획하는 행사로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국내 비영리 분야의 혁신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N_FORUM은 비영리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이슈를 함께 다루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N_FORUM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사회혁신과 변화를 끌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5 ----- 우리가 바라본 비영리
- 2016 ----- 비영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 2017 ----- 변화의 시대, 사라지는 경계, 비영리는?
- 2018 ----- N개의 연결 N개의 세상 - 비영리 어떻게 연결하고 협업할 것인가?
- 2019 ----- 비영리 미래전략보고서 - 뉴파워(New Power)에서 길을 찾다
- 2020 ----- 경험하는 미래, NEW 비영리 - 상상력으로 다시 쓰는 슬기로운 비영리
- 2021 ----- 비영리의 언어 - 문법 그리고 단어
- 2022 ----- Reimagining Community - N개의 생각, N개의 공동체



아산 프론티어 네트워크 회장 인사말



김민영

Reimagining Community, 새로운 공동체가 온다.

2018년 1월, 영국에서 외로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했다는 언론 소식에 한국의 반응은 뜻밖에도 미온적이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영국의 외로움 장관 임명 소식을 국내에 전했다지만 다수 언론은 해외 가십이나 단발성 보도로 다루었고 논의의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주장하는 이상의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외로움은 개인적 불행에서 사회적 전염병으로 확산됐다.”

- 영국 조 콕스 고독위원회 보고서 中 -

2020년 1월, 코로나19는 우리 주위의 모든 익숙한 것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대면 모임은 크게 줄었고, 직장은 빠르게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타지역의 가족과 지인을 만나기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 무렵, 어느 소도시에는 웃픈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요즘은 사람 사이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보살피는 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고립되고, 사람들의 시선 밖으로 사라지고 잊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같은 지인보다도 내가 잘 모르는 SNS 상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연결이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혼자만의 시간이 늘면서, 가장 크게 발전한 산업이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실감 콘텐츠였으며 메타버스가 급성장한 이유 역시 사람들이 공동체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국내 번역돼, 출간된 저서 ‘고립의 시대(원제 The Lonely Century)’에 따르면 ‘외로움은 파트너, 가족, 친구, 이웃 등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보살피지 않을 것 같은 기분만이 아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동료시민, 고용주, 마을 공동체, 정부로부터 지지와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분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배제된 느낌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외로운 세기에 덜 외로워지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접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22 N_FORUM에서는 ‘Reimagining Community - N개의 생각, N개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 초연결사회 속에서도 고립을 경험하는 시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로 이루어진 탈현실의 가속화 시대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상상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봄에 발족하여 열정적으로 준비해오신 2022 N_FORUM위원회와 N_SQUARE 동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서 나눈 경험과 고민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네트워크 10대 동문회장(2022.1.-12.), (사)기아대책 소셜임팩트본부장(2019~)

N_FORUM 기획위원장 인사말

사회 변화와 기술 혁신에 따른 공동체 전환의 흐름을 함께 읽고
새로운 공동체 실험과 대안을 공유하며
소셜섹터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박재희

안녕하십니까. 2022 N_FORUM 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재희입니다.

지난 3월 22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동문 십여 명이 모여 첫 기획위원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소셜섹터에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들 모두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했으며, 오늘 그 고민과 소통의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기쁩니다.

2022 N_FORUM이 제시한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가속화되는 디지털화는 초연결사회를 이야기 합니다. 동시에 초개인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고립과 혐오, 분열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새로운 연결의 기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이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상상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나 혼자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회가 아니라, 함께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2022 N_FORUM에서는 사회 변화와 기술 혁신에 따른 공동체 전환의 흐름을 함께 읽고, 새로운 공동체 실험과 대안을 공유하며 소셜섹터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상상의 지렛대를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와 실천가 여섯 분의 연사들을 모셔 강의와 토론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새롭게 만들어갈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영감과 상상이 2022 N_FORUM 을 통해 싹 틔워지길 기대합니다.

2022 N_FORUM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개월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 N_FORUM 기획위원분들 세심하게 행사 준비와 진행을 맡아주신 플랜백 관계자분들, 늘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시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동문회장단 및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소셜섹터의 혁신과 도전에 아낌없이 후원하고 협력해 주신 아산나눔재단과 재단 관계자분들 덕분에 2022 N_FORUM을 보다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고민하고 도전하는 소셜섹터 종사자 모든 분들께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에 2022 N_FORUM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5기, (재)스마이게이트 희망스튜디오 CSR기획팀 팀장

Reimagining Community

N개의 생각, N개의 공동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N_FORUM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상상해보기(Reimagining Community)!” 라는 주제로 소셜섹터 활동가들과 다양한 시민들을 만납니다. 초개인화, 파편화, 나노화되는 개인들과 우리 사회의 방향은 어떤 면에서 자유의 증대, 개인 취향의 존중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각 개인이 소중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연결점을 잃어버린 초개인화와 양극화로 인해 우리는 외로움과 고립, 혐오와 구분 짓기 등의 부정적인 측면들 또한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2 N_FORUM 기획위원들은 지난 몇 개월간 경제학자와 사회학자, 뇌과학자 등 학계 전문가들, 돌봄과 복지, 청년, 공동체 분야 활동가들, 새로운 방식의 모임과 공동체 실험을 하는 소셜벤처와 비영리단체들을 만나 고민과 해결점을 나눴습니다. 개발경제학자인 폴 콜리어님은 대한민국이 압축적인 경제발전과 성공적인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의 증가, 청년 취업난, 낮은 출산율, 포퓰리즘(대중영합) 정책의 득세 등 현행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병폐’로 인해 ‘악몽’ 같은 시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일상화된 마스크 착용과 스쳐 지나가는 익명성의 타인들 속에서 우리는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 가상현실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톨과 앱을 활용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각종 온라인 회의와 강연, 모임과 송년회까지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습니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전염병의 글로벌화, 디지털 현실의 무한 확장이라는 초연결성을 경험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연결되지 않는 각자도생의 고립사회를 만납니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고립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방식의 연결이 필요할까요?

이 시점 그리고 미래의 삶을 그리며 우리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과 가치를 원하고 있는지, 모두 함께 만족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적절한 거리와 방식으로의 연결이 필요한 걸까요?

소셜섹터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Reimagining Community

N개의 생각, N개의 공동체

취향과 취미를 공동 소재로 삼아 낯선 사람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 친근한 동네 주민이나 단골집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남의집)

서로 다른 정치부족들 간의 의견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며 조금은 가볍고 안전한 대화 장치가 마련된 온라인 공론장에서 우리 시대 현안들을 보다 건전하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옥소폴리틱스).

여러 이유와 계기로 고립된 삶을 사는 청년들이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신체와 정신, 관계, 지적 능력 등 다측면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비영리 활동들도 존재합니다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좀 더 유연하고(flexible), 열려 있고(open), 약한 연결고리(light ties)에 기초한 풀뿌리 차원의 '가벼운 공동체' 전략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요? (공석기 선임연구원)

"N개의 생각, N개의 공동체"라는 부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다양한 색깔과 아이디어를 통해 연결과 공생, 자유와 아이덴티티를 보장하고 드러낼 수 있는 수천, 수만 개의 공동체를 상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란 Z세대의 다중현실 경험과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통해 변화하는 우리 인간존재와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자 이재열 교수는 사회의 질이 높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포용적이고 활력 있는 사회'라고 말하며, 다양한 섹터의 행위자들이 공통의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콜렉티브 임팩트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해답과 단일한 공동체의 모습보다는 이렇게 수많은 상상과 실험, 도전 속에서 크고 작은 대안들이 쌓이고 쌓여 미래를 향한 문을 활짝 열고 한 발짝 크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1부_공동체의 대전환과 소셜섹터의 역할

FORUM Part. 1

공동체의 대전환과 소셜섹터의 역할

1. 초연결사회_소셜섹터의 역할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의 공동체 김대식 (KAIST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비상 상황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고
새로운 어떤 것이 탄생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 폴리 히긴스 (영국 환경운동가 & 변호사) -

Reimagining
Community

N개의 생각, N개의 공동체



1부_공동체의 대전환과 소셜섹터의 역할

1. 초연결사회_소셜섹터의 역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재열

- 前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 前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

강의자료
보러가기

제 8회 2022 N_FORUM 1부 첫 번째 강연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공급 측면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제조업 기반 효율성을 달성하던 전통경제와는 달리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 즉 네트워크 효과성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하는 디지털 경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사회에 대해 조명한다.

플랫폼 사회에서는 플랫폼 생태계에 쌓인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사회경제적 흐름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러한 초연결을 통해 잠재적인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인공지능에 대한 직업 대체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안게 된다고 한다.

이재열 교수는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플랫폼 사회의 다양성에 기반한 소셜섹터 영역의 콜렉티브 임팩트의 5대 조건(공통의제, 공유 측정 체계, 상호 강화활동, 지속적 소통, 중추 지원조직)을 제시한다.

“소셜섹터는 초연결사회에서 어떻게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사회혁신을 이루며, 콜렉티브 임팩트를 늘려갈 수 있을까?”

1부_공동체의 대전환과 소셜섹터의 역할

2.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의 공동체



KAIST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김대식

- KAIST KDK 미래보험 AI연구센터장
- KAIST 신세계아이앤씨-KAIST AI연구센터장

KAIST 김대식 교수는 그의 저서 [메타버스 사피엔스]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김대식 교수는 오늘날 가속화되는 다섯 가지 트렌드(탈세계화와 신냉전, 기후 위기와 정체성 위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두드러진 탈현실화) 가운데 21세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흐름은 탈현실화라고 말한다.

이러한 탈현실화의 한가운데 메타버스가 있다, 지난 1만 년의 역사는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한데 얽히며 여러 '현실들'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었고 그 통합의 정점에 인터넷이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모바일 인터넷이 진화한 인터넷 3.0 또는 몸을 지닌 인터넷, 새로운 현실 플랫폼 메타버스가 '현실'을 다시 여러 개로 갈라놓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가 우리의 두 번째 현실이라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호모 사피엔스의 새로운 여정, 탈현실화된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2부_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체 실험

FORUM Part. 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체 실험

1. 사회혁신을 고민하는 새로운 모델, 가벼운 공동체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2. 취향 기반 대화 커뮤니티, 남의집 김성용 (남의집 대표)
3. 좌우가 같이 노는 온라인 공론장 유호현 (옥소폴리틱스 대표)
4. 고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공생으로 김옥란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센터장)

“시작은 작은 한걸음이어도 좋다.
처음에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점차 쌓이면 나중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고립의 시대 / 노리나 허츠

Reimagining
Community

N개의 생각, N개의 공동체



2부_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체 실험

1. 사회혁신을 고민하는 새로운 모델, 가벼운 공동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공석기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 前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강의자료
보러가기

2부의 첫 번째 강연을 맡은 공석기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은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초국적 연결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연결은 쉬워졌지만 역량은 왜소화되는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석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마주한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에서 맞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 키워드로, 끈기와 회복탄력성, 혁신과 사회적 가치, 협치 그리고 수식어들, 참여(자발성, 능동성, 시민권과 시민성) 소통(숙의, 설득, 합의, 공론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시민사회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지역 공동체, 그리고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 모델을 제안한다.

**“연결은 쉬워졌지만 역량은 왜소화된 플랫폼 경제의 시대에,
전통적 지역공동체가 아닌 가벼운 공동체 실험은 지속될 수 있을까?”**

2부_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체 실험

2. 취향 기반 대화 커뮤니티, 남의집



남의집
대표 김성용

- 前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근무

강의자료
보러가기

사람은 (대체로) 누구나 외롭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관심사가 다르면 소통에 벽이 생긴다.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이라도, 좋아하는 게 같으면 그 순간은 정말 재미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스타트업 '남의집'은 그 외로움을 파고들고자 한다.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을 묶어서 신나게 이야기해보라고 판을 깬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공간을 빌려주는 곳은 아니다.
대신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을 비교적 쉽게 찾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열었다.
친구를 찾은 이용자들은 자신의 공간으로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을 초대한다.

**“사람들이 정말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르는 남의 집으로 가려고 할까?
내 공간을 쉽게 타인에게 개방하는데 사람들이 주저함이 없을까?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와 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서비스가 더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2부_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체 실험

3. 좌우가 같이 노는 온라인 공론장



옥소폴리틱스
대표 유호현

- 前 트위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前 에어비앤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강의자료
보러가기

다양성의 시대,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논쟁은 있어도 혐오는 없는’ 정치커뮤니티 옥소폴리틱스는 의사결정을 위한 사람들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트위터를 거쳐 에어비앤비 개발자로 일했던 유호현 대표가 2020년 7월 창업한 정치 스타트업이다.

옥소폴리틱스를 누군가는 귀여운 모습의 정치 성향 테스트를 만든 곳으로 알고 있을 수 있다. 옥소가 제공하는 테스트는 우리의 정치 성향을 호랑이(진보), 하마(중도 진보) 코끼리(중도), 공룡(중도 보수), 사자(보수)로 알려주고, 5개 동물들은 옥소폴리틱스 안에서 ‘부족’으로 나뉜다. 5개 부족이 매일 옥소폴리틱스에 올라오는 정치 질문들에 찬반을 표현하고 사이좋게 의견을 나누게 한다. 댓글과 톡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총 회원 수 10만 명, 월 12만 명의 방문자를 가진 정치 플랫폼이다.

“스타트업, 세상 많이 바꿨지만 정치는 못바꿔... 옥소가 바꿀 수 있을까?”

2부_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체 실험

4. 고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공생으로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센터장 김옥란

- 서울시 은둔청년 지원사업 총괄 센터장
- 바나바하우스 공동생활 공간 운영자
- 前 청년 체인지 업 프로젝트 사업 총괄 센터장

강의자료
보러가기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는 심리, 사회적 요소 등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었거나 고립될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공동체로 사는 삶'을 가르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이다.

김옥란 센터장은 '고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공생으로'라는 가치 안에 사회적 고립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경영하고, 동일한 아픔을 안고 있는 청년들과 지속적 연대를 통해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고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회복의 방향 프로세스는 나와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까지 이어져야 지속 가능한 공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세상은 홀로 서는 것이 자립이라고 한다. 자립은 온전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체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 해야 한다.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세상 속, 우리는 어떻게 나와 타인과 세상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에필로그 (N_FORUM 기획위원회)

Reimagining Community

N개의 생각, N개의 공동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_강성훈

2기_홍은영

4기_황세희

5기_박재희

6기_안효미

8기_박정민

8기_이미옥

8기_윤효주

9기_김우현

9기_최아름

10기_김소영

10기_길종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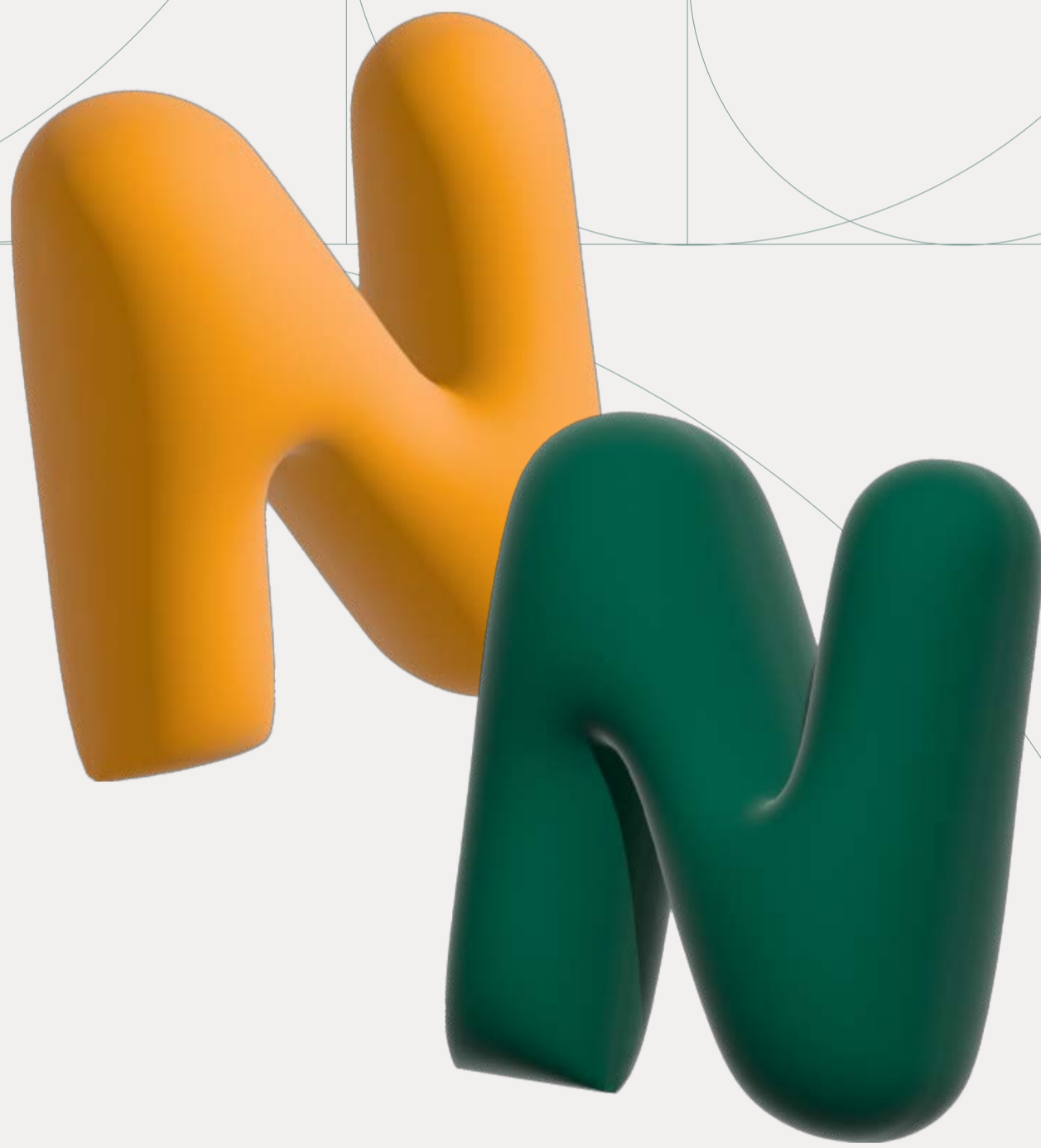
Reimagining Community

**N FORUM
2022**
CONNECTING FOR IMPACT

N개의 생각, N개의 공동체

2022. 09. 01. (목)
14 : 00 - 18 : 00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N포럼
만족도조사 참여하기

주최 | **INSQUARE**

후원 |  아산나눔재단